

<http://dx.doi.org/10.17703/JCCT.2022.8.3.297>

JCCT 2022-5-37

코로나 시대에서 바라본 일상극, 『우리 읍내』 재조명

Re-examining the Everyday Play, *Our Town* in the COVID-19 Era

박주은*

Joo Eun Park*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쏘튼 와일더의 『우리 읍내』에 나타난 일상극의 특징과 연극주의를 살펴보고,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19 시대에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해 주는 이 작품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탄생, 사랑과 결혼, 죽음이라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그로버스 코너즈는 현재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는 마을과 우주를 상징하고, 액션은 1901년에서 1913년에 걸쳐 있으며, 이 액션은 현재에서도 일어나는 일상생활로 보편성을 나타낸다. 와일더는 이 작품으로 두 번째 풀리처상을 수상하였고 비사실주의 연극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이 작가는 빈 무대를 기본 틀로 하고, 이 작품에서 무대 위의 행동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관객에게 그대로 보여 주는 이론인 연극주의를 보여 준다. 또한 그는 소품 대신에 배우가 마임으로 액션을 하도록 이끌고, 관객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하여 무대에 없는 소품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이 작품은 일상적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 주는 일상극으로 관객이 거리를 두고 연극과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효과를 낸다.

주요어 : 쏘튼 와일더의 『우리 읍내』, 일상극, 연극주의, 관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theatricality of everyday plays in Thornton Wilder's *Our Town*, and to re-examine this work that makes u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veryday life in the COVID-19 era. This work seeks to find a certain value in very trivial events with the subject matter of everyday life such as birth, love and marriage, and death. Grovers Corners, the background of this work, symbolizes the town and the universe where everyone lives today, and the action spans from 1901 to 1913, and this action shows universality in everyday life that takes place even today. Wilder won a second Pulitzer Prize for this work and is a leading figure in non-realist theater. Using an empty stage as the basic frame, this work shows theatricalism, a theory that acknowledges that the action on the stage is not true and shows that fact to the audience. In addition, he leads actors to act with mime instead of props, stimulating the audience's imagination and making them think of props that are not on stage as if they really exist. This work is an everyday play that makes people realize the importance of everyday life, and it has the effect of creating an opportunity for the audience to reflect on the play and life while keeping a distance.

Key words : Thornton Wilder's *Our Town*, Everyday Play, Theatricalism, Audience

*정회원, 상명대학교 글로벌인문학부대학 글로벌지역학부
영어권지역학전공 부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4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5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5월 9일

Received: April 30, 2022 / Revised: May 6, 2022

Accepted: May 9, 2022

*Corresponding Author: pjpark@smu.ac.kr

Dept. of English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Korea

I. 서론

쏬튼 와일더의 『우리 읍내』 [1]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평범한 일상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은 일상의 순간순간을 느끼면서 긍정적으로 살자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2020년 1월에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2] 전 세계적으로 일상이 거의 마비되었다. 행사가 금지되고, 여가 시설이 폐쇄되었으며, 인간의 감염으로 인해 모임이 현격하게 감소되었다.

특히 중국 상하이에서는 2022년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감염자 자택 외 이동금지 등 봉쇄 조치가 강화되었으며, 폐쇄된 주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식료품 배달을 기다리고 상태로 일상생활이 마비되고 있는 상태이다 [3]. 반면에 한국은 2020년부터 시행한 거리 두기 단계를 2022년 4월 25일로 해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를 2급 감염병으로 발표하고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를 유지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 5월부터 실외 마스크 관련 방침을 발표할 예정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4].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스크 없이 생활하고 자유롭게 모임을 하고 이동을 할 수 있으며 인원수 제한 없이 식사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인식하게 되면서 이 작품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재조명해 보는 것은 의미미한 일이다.

II. 일상극

1. 서구의 일상극

19세기 후반 사실주의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고 어거스트 콩트(August Comte)의 실증주의, 칼 막스(Karl Marx)의 물질주의,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유전과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사실주의극은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소재는 경제적 갈등, 가정 문제, 사회에 대한 투쟁,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등의 사회적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활사를 극화한 것이다. 이 사실주의극은 한 마디로 일상생활과 문제를 주제로 다룬 것이다 [5]. 이 사실주의극을 일상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일상극은 1950년경 영국의 키친 싱크 드라마(Kitchen Sink Drama)와 1970년대 영국 웨스커(Wesker), 독일 크뢰츠(Krotez)의 신자연주의, 프랑스의 벤젤(Wenzel) 등의 창조 작업과 연출 등 일상의 삶을 무대 위에 보여주는 다양한 실험적 글쓰기와 미학을 지칭한다 [6]. 이 키친 싱크 드라마는 키친 싱크 리얼리즘(Kitchen Sink Realism)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조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영국의 연극, 미술, 소설, 영화 드라마 등에서 유행한 사조이다. 사회적 사실주의의 일종으로서 노동 계급의 모습을 그리며, 낙태, 범죄, 노숙 같은 논쟁적인 사회정치적 쟁점들을 다룬다 [7]. 이 사조가 잘 나타난 싱크 키친 드라마는 중하층 계급을 소재로 하는 연극으로 중하층 계급의 언어 및 사회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 일상극이라고 불리는 『우리 읍내』는 3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막은 제목은 다음과 같다. 1막은 일상생활, 2막은 사랑과 결혼 3막은 죽음이다. 1막은 1901년 5월 7일, 깁스(Gibbs) 집안과 웹(Webb) 집안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전형적인 하루 일과이다. 2막은 1904년 7월 7일, 무대감독이 조지(George)와 에밀리(Emily)가 어떻게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결혼식을 앞두고 딸을 시집보내는 웹 부인과 결혼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에밀리의 감정이 묘사되어 있고 결혼식 장면으로 막이 끝난다. 3막은 1913년 여름, 에밀리는 둘째를 낳다가 죽고, 사후의 세계에서 그녀는 무대감독에게 과거 12번째 생일로 돌아갈 수 있게 부탁하고. 생의 세계로 돌아와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과 이별하고, 인생에 대해 순간순간을 인식하지 못한 후회를 하고 사후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이 소재면에서 일상생활을 그리고 일상 언어를 사용한 점에서는 일상극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의 일상극

2000년대 한국 연극에 나타난 주요 경향 중의 하나는 일상극이다. 한국의 일상극은 일상을 다루는 소재주의적 개념에 가깝다. 반면에 이 정의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는 ‘일상의 새로운 발견과 일상에 대한 형이상학적 보충’의 연극인 동시에, 새로운

미학과 양식적 실험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일상성을 비판적,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6]. 이는 바라보는 관객이 아니라 연극에 직접 참여하고 사고 할수 있는 적극적인 관객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 일상극의 기원은 박근형의 『청춘예찬』[8]이라고 한다 [7]. 이 작품은 4년째 졸업을 고민 중인 22살의 고등학교 2학년생 ‘청년’과 그의 주변을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에 대한 사랑과 불완전한 청춘을 예찬한 것이다. 이 작품은 1999년 초연 이후 계속 공연되고 있으며, 2017년에도 공연되어 호평을 받았다. 이 공연은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여 관객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일상극은 관객의 역할을 중요하게 간주하는데 『우리 읍내』에서는 무대감독이 관객에게 직접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가 설명하는 가상의 소품을 관객이 실제로 상상하기도 하고, 이 작품이 주는 의미에 대해 사고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작품의 주제는 우리 일상생활의 중요하지 않은 무수한 세부 사항과 시간, 사회의 역사 및 현재의 종교적 견해의 위대한 관점 사이의 관계이다 [9]. 와일더는 이 작품에 나타난 일상생활의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어떤 가치를 찾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인생을 선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생의 매 순간의 가치를 긍정하고 가장 평범하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랑하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다.

III. 와일더의 연극주의

와일더는 관객의 의식을 깨우는 서사극처럼 관객이 연극은 연극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 가장의 세계라고 인식하기를 원했다. 특히 그는 일인 다역을 맡는 무대감독을 등장시켜서 관객으로 하여금 연극은 허구의 세계라는 인식을 제공하는 기법인 연극주의를 주장한 작가이다. 이 연극주의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대 위의 행동이 사실이 아니고 가장이라는 것을 관객에게 그대로 보여준다. 극에 필요한 소도구들은 배우들의 몸짓과 동작, 무대감독의 설명, 음향효과 등으로 가장된다. 이는 관객이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상상력을 사용하여 사고하게 만든다.

둘째, 연극은 가능한 많은 관례를 요구하고 관례는 약속된 거짓이며 인정된 허위이다 [10]. 이 관례는 일종의 연극적 약속이다. 이는 특정 장치들이 사실적이거나 자연스러울 필요 없이, 임의적 기준에 의해 특정 의미나 중요성이 수용되는 것을 극장의 관습에 의해 암묵적으로 협의된 합의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11]. 이 작품에서 무대감독의 일인 다역과 소품을 사용하지 않고 빈 무대를 사용하는 것은 연극 관례의 하나의 예이다. 빈 무대가 마을을 표현하기 위한 와일더의 기법이다. 빈 무대는 관객으로 하여금 그들이 마음의 눈을 가지고 연극의 배경을 떠올릴 것을 요구한다 [12]. 다시 말해, 이 관례는 관객들과의 연극적 약속이다. 그리고 와일더는 가면이나 운문 같은 연극적 약속과 위장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13].

셋째, 연극은 관객의 집단정신을 향해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연극의 범위는 그것을 경험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공감할 주도록 그 폭이 넓어야 한다 [14]. 이 작품은 1 막 일상생활, 2 막 사랑과 결혼, 3 막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모든 인간에게도 공통적이며 중요한 관심을 갖게 하는 원형적 차원의 전개로 보편성을 가지게 하고 과거와 현재의 미국 관객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모든 관객에게 폭넓은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와일더는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그로버즈 코너즈 (Grover's Corners)를 지구의 다른 곳, 우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확대하였고, 시간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수백, 수천, 수백만과 같이 반복되는 단어들은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부여되는 보편성으로 보았으며, 이 작품의 원형과 상징적 행동은 이러한 보편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15]. 특히 등장인물 웹 편집장은 이 읍내를 전체 미국 사회와 연관 지어 설명하는데 이 장면도 공간적 차원의 확대로 보편성을 나타내 준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집단정신에 호소한다.

넷째, 무대감독의 일인 다역이다. 무대감독은 해설자, 읍내 여인, 약방 주인, 주례 목사 등 여러 역할을 맡는다. 그는 맡은 역할에 따라 목소리나 제스처 등을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관객에게 항상 같은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환상을 깨뜨린다. 또한 그는 전지전능한 인물로

등장인물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언급한다. 작품 전개를 전환시키거나 1 막에서 관객석에 심어 놓은 배우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하고 소품을 정리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인 다역은 비사실주의극에서 통용되고 한국 마당극에서도 시도되었다. 이 일인 다역은 현존적 아우라를 전면애 내세워 연기와 배우들 간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실제와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게 한다 [16].

무대감독은 와일더의 철학과 사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무대감독의 끊임없는 관여와 여담을 통하여 와일더는 관객으로 하여금 그들이 상징적으로 재현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해 준다 [12].

이와 같이 와일더의 연극주의는 실제 생활의 재현의 특징을 가진 사실주의극은 아니며, 연극은 인생의 상징이고 무대는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관객의 사고력을 요한다.

IV. 『우리 읍내』에 나타난 연극주의

1. 1 막

첫 번째 무대 지문은 커튼과 배경이 없고 도착한 관객이 어스름한 빈 무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무대감독이 테이블과 의자를 놓는다. 무대감독은 작품명, 저자와 연출가 등을 소개하고 마을 이름과 위치를 설명한 뒤에 1 막은 마을의 하루로 1901년 5월 7일에 시작되며 읍내 구조, 자연, 깃스 집안과 웹스 집안의 집을 가르쳐 준다. 그는 이 읍내를 좋은 읍내라고 요약하고 묘지들의 유래와 거기 묻힌 자들의 후손에 대해 말해 준다.

이 무대 지문에서 보듯이 빈 무대는 와일더의 연극주의를 잘 나타낸 준 것이다. 그는 중국 경극과 일본의 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12]. 경극은 대도구가 없으며 장막만 무대 장면의 안에 걸려 있을 뿐이고 노는 소도구나 무대 장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와일더는 일상성을 강조하기 위해 빈 무대를 사용하는 것이다.

무대 지시문에 이어 첫 번째 대사는 신문 배달부 죠(Joe)가 의사 깃스에게 인사하고 누가 아픈지를 묻고 깃스는 마을에서 쌍둥이가 탄생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안부를 묻는 일상은 코로나 발생 상황에서 전염 때문에 대면으로 거의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일상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해 주는 것은 무대감독이다. 그는 타임캡슐에 이 연극의 대본을 넣겠다고, 천 년 후의 사람들이나 지금 여기 우리들이나 자라서 결혼하고 살다가 죽는 거 그거야 마찬가지로 아니겠냐고 물음을 던진다. 이는 삶의 순환성이다.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지만 태어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죽는다. 이 작품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대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레베카(Rebecca)는 친구 제인(Jane)이 목사에게 보낸 편지 봉투에 제인 크로프트, 크로프트 농장, 그로버스 코너즈, 서튼 카운티, 뉴햄프셔, 미합중국, 북미 대륙, 서반구, 지구, 태양계, 우주, 신의 마음이라고 쓰여 있다고 오빠 조지에게 말한다. 하찮고 평범한 개개인의 인생이 세계, 혹은 우주적 조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을 평범한 남매의 잡담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이 장면은 3 막 이후의 배경이 되는 공동묘지에서 망자들이 살아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시절 그들이 흘려보냈던 하루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장면과 조용한다 [17]. 이는 와일더의 일상의 위대함과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간의 차원을 확대한 것이다.

2. 2 막

2 막은 3년이 지난 1904년 7월 7일이다. 무대감독의 첫 대사로 시작한다. 그 내용은 자연의 변화와 젊은이들이 숨이 차서 계단을 뛰어오르지 못한다는 말과 이 읍내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이 막은 사랑과 결혼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깃스 부인과 웹 부인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준비를 한다며 한 분은 20년, 다른 한 분은 40년 휴가도 없이 생활하셨다고 설명한다. 이 부엌 장면은 페미니스트 드라마의 특징 중 하나인 부엌을 배경으로 삼아 두 집안의 어머니가 등교 전에 가족들의 식사를 챙겨 주는 내용이 나온 것이다. 이는 여성의 공간으로 간주되어 온 부엌에서 여자 등장인물들이 가부장제가 여성의 역할로 규정된 ‘여성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18]. 또한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 장면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행동을 보여 준다. 와일더는 가족이라는 근원적 단위의 인간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음식과 대화를 공유하면서 연대감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인 부엌이 인간 삶의 중심됨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19].

첫 대사 마지막 부분에서 무대감독은 중서부 지역 중의 한 사람의 말, '살기 위해 삶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vicious circle에 대해 언급한다. 여기서 vicious circle을 번역하면 악순환이지만 여러 개의 번역본에는 순환논법이라 하였다. 이 의미가 결론의 진리와 전제의 진리가 서로 의존하여 논증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논증되지 않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삶이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은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도 있고 우리를 지치게 하기 때문에 악순환의 의미도 있으나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모를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오고 있다는 의미이다.

와일더는 이 작품을 따뜻한 시선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으로 힘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제시한다. 그는 이 작품에서 개인과 자연, 인류와 우주 사이의 의미 있는 관계를 관객에게 회복시키고 신비와 사랑의 요소를 삶에 되찾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15].

무대감독의 첫 대사가 끝난 후에는 1 막처럼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이라는 일상이 나온다. 신문은 인간의 정신이고 우유는 인간의 육체 자양분임을 상징하고 두 요소 모두 인간에게 필요한 부분임을 상징한다. 다음으로 김스 부부의 대화를 보면 김스가 결혼해서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되었지만 결혼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어도 여전히 할 이야기가 있다며 결혼의 의미를 끊임없는 대화로 표현한다.

다시 무대감독이 등장하여 조지와 에밀리의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는 잡화점의 주인으로 분장하여 곧 자동차가 나올 미래에 대해 언급하고 조지와 에밀리로부터 음료를 주문받는다. 이제 무대감독은 결혼식 준비를 하고 목사로 변신하여 주례 역할을 한다. 주례 내용은 결혼식의 다른 증인들인 조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당부와 대부분 조상들이 짝을 지어 살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도 보편적 상황을 보여 준다.

2 막에는 이처럼 무대감독은 여러 역할을 하지만 한 인물임을 연극적 관례로 관객들에게 알려 준다. 끝으로 그는 2 막이 끝나고 10분간 휴식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면서 관객과 거리 두기를 한다. 다시말해 브레히트의 서사극의 소외 효과처럼 관객으로 하여금 이 작품이 연극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소외 효과를 가진 제시적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제를 인식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 주제를 낮선 것으로 보이게 한다 [20]. 우리는 무대감독의 등장으로 환상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대감독의 역할은 해설자이면서 일인다역을 하고 장면 전환을 자유자재로 하고, 작가의 사상을 대변하는 인물로 와일더의 연극주의를 잘 나타낸다.

3. 3 막

3 막은 9년 후인 여름이다. 배경은 공동묘지로 무대는 10개 내지 12개 정도의 의자들이 놓여 있다. 무대감독은 그로버즈 코너즈의 변한 상황을 설명하고 공동묘지가 있는 언덕을 설명하면서 3 막이 시작된다. 이 무덤들에는 김스 부인, 스톰슨(Stimson), 소움즈 부인(Mrs Soames), 윌러스(Wallace) 등 마을 사람들이 있다. 이 묘지는 아름다우며 마을의 중요한 부분으로 과거와 현재를 공유하는 장소로 우리가 인생의 과정 속에서 죽음을 일상으로 수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무대감독은 1 막부터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 대해 설명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사용하여 시간의 연속성의 일반적인 한계를 뛰어넘는데 [12], 특히 3 막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죽음의 세계까지 묘사하고 에밀리를 환생시킨다.

무대감독은 모두 본능적으로 무언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며, 그 무언가는 인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며 위대한 성인들이 5천 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 왔지만 사람들이 잊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고 독백한다. 그는 망자가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에 무관심하게 된다고 덧붙인다. 이 독백은 3 막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치를 에밀리를 통해 제시한다.

이 독백이 끝난 뒤에는 현재로 돌아와 샘(Sam)과 조의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되며 마을 사람들의 소식을 주고 받다가 조가 에밀리의 죽음 소식을 샘에게 전달한다. 반면에 망자인 소움즈 부인은 에밀리 결혼식도 아름다웠고 에밀리와 조지가 차린 농장도 아름다웠다고 말한다. 이 작품에서 순간순간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인물은 소움즈 부인이다. 그녀는 2 막에서 에밀리의 결혼식을 보고 조지와 에밀리는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늘 말했죠, 행복, 그건 대단한 것이예요. 중요한 일은 행복해지는 것이지요."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이 대사는 와일더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라는 인생

철학을 나타내 준 것이다. 이 철학은 『죽은 시인의 사회』[21]에서 키팅(Kitting)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카르페 디엠’(Carpe Diem)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의미는 ‘현재를 즐기라,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3 막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에밀리가 환생한 것이다. 에밀리의 장례가 치러지고 그녀는 자기네 농장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살아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아쉬워한다. 그녀는 이전에 산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며 우울해하는지 몰랐으며 산 사람들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무대감독에게 애원하고, 김스 부인은 에밀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 날을 선택하라고 한다.

무대감독은 에밀리가 선택한 12번째의 생일로 보내 주는데 와일더의 연극주의가 가장 잘 나타난다. 사람이 사후의 세계에서 현재로 올 수 없는 상황을 관객으로 하여금 연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에밀리가 생의 세계로 돌아오는데 모든 풍경이 옛날 그 대로이고 어머니는 여전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고 아버지는 모교에 연설을 하고 오시는 길이다. 그녀는 부모님께서 그렇게 젊었고 아름다우셨는데 늙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전 다 자랐어요. 전 엄마랑 모든 걸 사랑했어요. 모든 것을 뚫어지게 볼 수가 없어요.”라고 말한다. 에밀리는 이날의 한순간이 매우 소중한데 가족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 보내는 것과 얼굴조차 쳐다보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

에밀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엄마, 단 한 번만이라도 절 보던 식으로 봐 주세요. 엄마 14년이 흘렀고, 전 죽었어요. ... 엄마, 잠시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 서로 쳐다봐요.”라고 애절하게 애원한다. 그러나 에밀리는 서로 쳐다볼 시간도 없이 서로에게 무심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소중한 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무덤으로 데려가 달라고 무대감독에게 부탁한다. 에밀리는 울면서 마지막으로 “미처 몰랐어요. 모든 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결코 몰랐어요. 언덕 위의 제 무덤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지만 잠깐 기다려 주세요! 다시 한번만 보고요. ... 오, 세상여어, 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깨닫기에는 너무 멋진 곳이야. 그들이 살고 있는 동안 인생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나요? - 매 순간, 순간마다요?”라고 말한다. 이에 무대

감독은 없다고 대답한다.

이와 같이 와일더는 에밀리의 죽음을 메멘토 모리의 문학적 도구로 이용하여 독자와 관객들에게 카르페 디엠의 주제를 전하는 것이다. 이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네가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죽음을 상기시키거나 경고하는 사물이나 상징을 의미한다 [19].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해 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바쁘게 살지만 에밀리의 대사처럼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사는 현실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멋지다는 것을 사후의 세계에서나 인식하는 점을 깨우치게 된다. 한 마디로 이 작품은 삶에 있어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면과 비극적 삶의 소모에 대해 대단히 소중한 가치를 그리고 있다 [22].

이 작품을 통해 현재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이 마비되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3]. 이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원격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녀 학습지도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스트레스로 나타났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진 경우도 있지만 나빠진 경우도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이 세계 각국의 가족관계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이미 해제했거나 해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24], 중국은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 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5]. 반면에 한국은 5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고 50명이 참석하는 집회 및 공연, 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26]. 사실 한국은 그동안 거리 두기 단계로 인해 결혼식 참여 인원 제한을 받았으며, 모임 인원 제한까지도 받았다. 이와 같이 전 세계의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규제와 제한을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일상생활을 그리워하며,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작품의 가치와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막에 나오는 찬송가의 상징에 대해 살펴 보면, 찬송가는 인간관계의 유대감을 보여 준다 [19]. ‘성도가 하나됨에 축복을’이라는 찬송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양한 의미의 관계로 결합되는 것에 축복을

내려 달라는 것이다 [19]. 이 찬송가는 결혼식 장면에서도 나온다. 우리는 찬송가를 통해 와일더의 종교적 색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3 막 내내 등장인물이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장면을 통해 와일더가 강조한 가족 관계와 사랑, 사람 간의 유대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서구의 일상극과 한국의 일상극에 대해 살펴보았고, 와일더의 『우리 읍내』에 나타난 연극주의를 1 막, 2 막, 3 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서구의 일상극은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시작되었고 일상생활과 문제를 다룬 사실주의극을 일상극이라고 한다. 반면에 2000년대 한국 연극에 나타난 일상극은 소재주의적 개념에 가까우나, ‘일상의 새로운 발견과 일상에 대한 형이상학적 보충’의 연극인 동시에, 새로운 미학과 양식적 실험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일상성을 비판적,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읍내』는 일상극으로 와일더의 연극주의가 가장 잘 나타난 작품이다. 연극주의의 특징은 첫째, 무대 위의 행동이 사실이 아니고 가장이라는 것을 관객에게 그대로 보여준다. 둘째, 연극은 가능한 많은 관례를 요구하고 관례는 약속된 거짓이며 인정된 허위이다. 셋째, 연극은 관객의 집단정신을 향해 말해야 한다. 넷째, 무대감독의 일인 다역이다. 이와 같은 연극주의의 특징들은 이 작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 막은 커튼과 배경이 없는 빈 무대로 와일더의 연극주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일상생활의 가장 소소한 사건들, 마을 사람들끼리 길에서 만나 인사하고, 두 집안의 어머니들은 식사 준비를 하는 등등의 행동이 나온다. 2 막은 결혼식 장면으로, 무대감독은 주례 역할 등 일인 다역을 하고 장면 전환을 자유자재로 하고, 작가의 사상을 대변하는 인물로 와일더의 연극주의를 잘 나타낸다. 3 막은 에밀리와 장례식 장면으로 가장 극적인 부분은 에밀리가 환생한 것이다. 무대감독은 사후 세계에서 에밀리를 삶의 세계로 보내주는 전지전능적인 역할을 보여 와일더의 연극주의를 가장 잘 나타낸다.

한 마디로 와일더의 연극주의는 무대 위의 행동은 연극이며 관객들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거리 두기와 같은 소외 효과를 느끼며, 등장인물들의 마음으로 무대

소도구와 배경을 상상하도록 만든다. 특히 무대감독의 역할은 관찰자와 해설자이면서 일인 다역을 하고 와일더의 사상과 철학을 전달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우리로 하여금 삶의 가치를 인식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와일더는 『우리 읍내』를 통해 삶의 매 순간에 기쁨을 느끼고 소중히 여기며 죽음도 삶의 과정 중의 하나로 수용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다. 앞으로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작품의 후속 연구가 나오길 바란다.

References

- [1] Wilder Thornton, *Three Plays*, New York: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2020.
- [2]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1291964>
- [3]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1172761>
- [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5/113054940/1>
- [5] <https://novaonline.nvcc.edu/eli/spd130et/realism.htm>
- [6] Sung Hee Kim, “The Manner of Writing and Performance for Korean Everyday Drama,” *Drama Research*, Vol. 31, pp. 31-69, 2009.
- [7] https://ko.wikipedia.org/wiki/%EC%8B%B1%ED%81%AC%EB%8C%80_%EC%82%AC%EC%8B%A4%EC%A3%BC%EC%9D%98
- [8] Geun Hyung Park, *Ode to Youth*, Seoul: Drama and Human, 2007.
- [9] <https://www.cliffsnotes.com/literature/o/our-town/critical-essays/thematic-structure-of-our-town>
- [10] Wilder, Thornton, *American Characteristics and Other Essays*, Bloomington: iUniverse, 2000.
- [11] Milly S, Barranger, *Theatre: A Way of Seeing*, Belmont: Wadsworth, 1991.
- [12] Gye Sook Kim, “Theatricalism & Peking Opera: Centering on *Our Town*,” *Modern British and American drama*, Vol. 19, No. 1, pp. 77-103, 2006.
- [13] M, C, Kuner, *Wilder's Dramatic Principles, Readings on Our Town*, New York: Greenhaven Press, 2000.
- [14] Seok Gi Yeo, *Modern English and American Plays Note*, Seoul: Hanshin Press, 1994.
- [15] Won Ok Yang, “Archetypal Dimensions in *Our Tow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Paper Collection, Vol. 8, pp. 61-75, 1989.
- [16] Sin Young Lee, “Study on Double Role in Relation

- to Improvement of Corporeality-Focused on *The Story of Two Soldiers, Our Town*,” *Drama Research*, Vol. 49, pp. 131-163, 2016.
- [17]Keun Young Ko, “Return of the Text: ‘The Theatre of Everyday Life’ as an Alternative Post-Post Drama Represented in *Our Town* and *The Aliens*,” *Humanities Research*, Vol. 29, pp. 3-36, 2018.
- [18]Hyung Sik Lee, *Contemporary American Drama*, Seoul: Shinasa, 1995.
- [19]Yong Hee Lee, “Re-Examining Thornton Wilder’s Ritualistic Play, *Our Tow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Vol. 51, No. 3, pp. 301-323, 2009.
- [20]Kwang Jin Yoon, *Expressionist theater and Epic theater*, Seoul: Hyeonamsa, 1988.
- [21]Renine Osteen, *Dead Poets Society*, Scotts Valley: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6.
- [22]Burbank Rex, *Thornton Wilder*, Farmington Hills: Twayne Press, 1962.
- [23]Meejung Chin, Miai Sung, Seohee Son, Jaerim Lee, Youngeun Chang, “Changes in Family Life and Relationship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heir Associations with Perceived Stres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58, No. 3, pp. 447-461, 2020.
- [2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626#home>
- [25]<https://biz.sbs.co.kr/article/20000060423>
- [26]<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30/113162262/1>